

※ 『이고리 원정기』 - 서글픈 종말에 대한 아름다운 전주곡

= 러시아 역사의 시작인 “키예프 루시” 시대 (9세기 중엽~1240) 중세 동슬라브 문학의 최고 걸작

I. 키예프 루시(Киевская Русь; Kievan Rus')

- 8세기 경부터 중동부 유럽 평원에 정주하기 시작한 동슬라브족이 중심이 되어, 북방적 요소가 결합되어 성립된 중세적 봉건 연맹체
-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가 실질적인 중심이 되어 존재
- 키예프, 노브고로드, 체르니고프, 블라디미르-수즈달 등 도시에 거점을 둔 공후(князь; prince)가 다스리는 ‘공국’이 키예프 루시를 구성했음
- 역사 시대의 시작인 9세기 경부터 11세기 중반 무렵까진 비교적 안정된 정치 상황을 보여줬으나, 12세기 접어들면서 공후의 수가 증가하고, 자신의 통치 지역(공국)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또한 공국 상속과 계승에서 갈등이 빈번하면서 키예프 루시 내 공국들간의 다툼과 분쟁이 잦아졌다.
- 이런 상황에서 역시 초기에는 키예프가 ‘중재자’로서의 갈등 해소의 역할을 했으나, 12세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키예프의 위세가 쇠퇴하고, 주변 여타 공국들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점 서로간의 갈등은 심해졌다.
-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동부의 블라디미르 공국의 안드레이 보고류브스키라는 공후가 키예프를 유린(1175)한 것을 들 수 있다.
- 또한 이 시기 내분과 더불어 주변 접경 민족들의 외침도 끊이질 않았는데, 특히 키예프 루시의 남동부 스텝 지역에 자리잡은 여러 아시아계, 투르크계 유목 민족은 접경한 키예프 루시 공국의 변경 지대를 종종 침범, 약탈 행위를 자행했다.
- 침범을 당한 키예프 루시 공국에서도 역시 보복의 성격을 띠는 토벌전이 자주 일어났다.
- 12세기 마지막 2~30년간부터 시작해 극심해진 키예프 루시의 내분과 변경 민족의 잦은 외침에 시달린 키예프 루시는 결국 1240년, 몽고-타타르의 침입으로 외적에 대해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멸망하게 되었다.

II. 중세 동슬라브 문학

= 문화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언어 예술로서 ‘문학’의 시작은, 중세 동슬라브에 있어 빨랐고 활발했으며, 축복받았었다.

- 10세기 경에는 그리스어 자모를 빌려 슬라브어 소리를 표기한 이른바 키릴문자(Кириллица; Cyrillic alphabet)가 전해졌고, 988년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기독교(동방정교)를 받아들여 문화적으로 번성
- 로마 가톨릭이 지배한 오늘날의 서유럽 거개의 국가와는 달리 지역 토착어에 대해 관대

했던 비잔틴 제국의 정책으로 인해 슬라브 모어를 ‘종교어’로 사용할 수 있었다.

- 이를 통해 동슬라브에서는 자신들의 구어를 바탕으로 ‘민족’ 문학이 중세부터 발달할 수 있었다.

- 중세 시대 문학의 가장 큰 두 특징은 ‘수사성(手寫性)’과 ‘익명성’이다. 인쇄술이 발견되기 이전이라 문학 텍스트는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고<рукопись>, 또한 근대 ‘개성’의 발달 이전 이면서 신 앞에 선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자각하는 의미에서 ‘작가’를 전면에서 내세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 또한 중세 문학은 주제론으로 보아 ‘종교’ 문학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과 근대의 개념으로 ‘문학’이라 말하기 힘든 종류의 글쓰기(성서와 전례서, 예배문 전서)가 사실상 문자 텍스트의 절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었다. 못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의 질문이라고 여겨진다.

- 종교 바깥의 영역에서 있는 글쓰기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이른바 역사기술이었다. 이른바, “연대기”(летопись) 기록과 작성이었다.

- 이러한 연대기 외에 종교와 예술의 경계에 서 있었던 또 다른 종류의 글쓰기는 성자들의 일생을 기록한 “생애전”(житие)이었다.

- 이 외 또 다른 종류의 중요한 글쓰기는 교회 설교문 작성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기독교와 수사학에 대한 지식이 망라되는 ‘배움’을 통한 글쓰기였다.

-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글쓰기 종류는 어떤 역사적 사실 또는 당대의 사회 상황, 또는 보다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 설득, 교화, 감동 등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문학이라 일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 부합하는 중세의 글쓰기 종류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장르жан르)의 글쓰기로 현존하는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바로 『이고리 원정기』(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를 주저없이 꼽을 수 있다.

더 읽을거리

조주관. 『고대 러시아 문학 선집 1, 2』. 열린책들: 1997.

구드지, 니콜라이/정막래. 『고대 러시아 문학사 1, 2』. 한길사: 2008.

오종우. 『대지의 숨, 러시아 문학의 숨표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최정현. 『이고리 원정기』 연구: 작가의 역사의식과 예술성을 중심으로.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9.

최정현. 『이고리 원정기』의 시학적 공간. 노어노문학. 제21권(2009) 1호.